

콘텐츠 시대... “전남도의원들이 달라졌어요”

현장 밀착 행보 ‘이미지 변신’
드론 띄우고 인터뷰 영상 촬영
생생한 도정질의로 대책 촉구

“도의원들이 달라졌어요.”
전남도의회와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반응이다. 자질 부족, 전문성 결여, 이해관계 밀집한 상임위원회 활동, 한량미달 예산안 심사 등으로 술한 비판을 받았던 예년 의회 활동과는 사뭇 달라졌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소지역주의 매물, 팽탕 질의, 실적쌓기식 청부 조례 발의 등 지양해야 할 행태가 사라진 건 아니지만 현장 밀착 행보를 통해 이미지 변신을 시도하는 움직임이 두드러지고 있다는 게 지역 정치권 분위기다.

적극적인 현장 정치 행보를 보이는 의원들이 많아졌다는 게 대표적이다. 도정질문이 지상파 방송으로 생중계되는가 하면, 의회 상임위원회 활동까지 인터넷 생방송으로 공개되면서 도민 알권리와 투명한 의정활동에 대한 지역민들의 관심이 높아진 게 한몫을 했다.

당장, 지난 12일-13일 열린 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에 나선 일부 의원들은 기본적인 통계자료에다 PPT 자료뿐 아니라, 직접 현장을 찾아 리포터 역할을 하며 주민들과 인터뷰한 영상, 전화 인터뷰 내용을 설득력 있게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김호진 의원은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간 일선 학교에 공급된 ‘스마트 에듀팜’이라는 교육용 장비 219대(4억 8000여만원)가 쓸모없이 방치된 현장을 보여주기 위해 목포·영암 초등학교를 방문, 창고에서 찾아낸 먼지 쌓인 관촬용 온실과 말라 비틀어진 채 죽어있는 재배용 식물 등을 찍은 사진을 의회 본회의장에 띄우고 예산 낭비 실태를 꼬집었다. 김 의원의 현장 취재 사진을 본 전남도교육감은 “당장, 관련 교육 장비 납품을 중단하고 문제를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7월에도 5분 발언을 통해 마트 점원, 주민, 초등학교생들을 인터뷰한 1분 30초 짜리 뉴스 형태의 영상을 만들어 의회에서 틀기도 했다. 김 의원은 편의시설이 없어 이른 저녁 시간에도 인기척을 찾을 수 없는 지역 마을을 보여주겠다며 드론을 띄워 관련 영상을 촬영하기도 했다.

최미숙(민주·신안 2) 의원의도 섬 지역 의료실태 문제를 지적하는 도정 질문 과정에서 거점 응급 의료기관의 열악한 직원 숙소 사진, 병원장을 인터뷰한 영상을 의회 본회의장에서 틀었다.

전남지역 유인도 272곳 중 90.8%(247곳)의 섬에 병·의원, 한의원 등 의료기관이 없고 59.5%(162곳)는 보건진료소조차 없는 열악한 의료 실태를 언제까지 참고 있어야 하는냐는 게 최 의원의 지적으로, 정부를 상대로 전남지역 국립대 신설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달라는 주문이었다.



농산물 공판장의 추석 과일 14일 광주시 서구 매월동 서부농수산물 도매시장 공판장 내부가 전국 각지에서 올라온 과일 상자로 가득 차 있다. 농협 광주공판장에 따르면 올 추석 과일 가격은 폭염과 태풍 등의 영향으로 평년보다 최대 40% 비싸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박문옥(민주·목포 3) 의원은 공익사업을 시행하면서 편입된 땅에 대한 보상금 미지급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해당 토지 소유자측 가족을 찾아내 전화 인터뷰한 녹음 파일을 들고 신속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기도 했다.

장은영(민주·비례) 의원은 이번 도정질문을 통

해 소아과 없는 전남 시·군에 대한 시급성을 알리기 위해 어린이 울음소리를 녹음한 뒤 본회의장에서 틀어 현안을 환기시키기도 했다.

전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관계자는 “도정질문, 5분 발언에 나서는 경우 전날부터 수차례에 걸쳐 리허설을 하고 관련 인터뷰, PPT 자료 등

을 정리하는 의원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면서 “집행부가 제공한 자료에 의존하던 과거 방식에서 탈피, 주민들을 찾아가 인터뷰를 하거나 현장성 있는 영상까지 촬영해 문제점을 정확히 짚고 대책을 주문하는 의원들의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尹 “쇼핑몰 하나 못짓는 상황 국민이 허용 안해”

부산서 지방시대 선포식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우리 정부는 모든 권한을 중앙정부가 움켜쥐고 말로만 지방을 외치던 지난 정부의 전철을 밟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개최된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의 ‘지방시대 선포식’에서 “지역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어 “지역에 변변한 쇼핑몰 하나 짓

지 못한 채 어저구니없는 그러한 정치적 상황을 더 이상 국민들께서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대선 후보 시절부터 공약한 ‘광주 복합쇼핑몰 유치’ 등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 전체의 발전과 성장을 위해서 서울과 부산이라는 두 개의 축이 작동해야 한다”며 “그라야 영남과 호남이 함께 발전함으로써 대한민국 전체가 일어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교육이 지역발전의 핵심”이라며 “지역의 산업과 연계된 교육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통해 양

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역의 산업단지에 주거 시설과 복합 문화 공간을 조성하겠다”며 “15개 국가 첨단 산업단지를 조성해 지역별로 거점을 육성하고 1000개 이상의 디지털 기업이 집적되는 디지털 혁신지구를 다섯개 이상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정부는 이날 기회발전특구·교육자유특구·도심융합특구·문화특구(대한민국 문화도시) 등 4대 특구를 중심으로 한 5대 전략, 9대 정책을 발표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2025년 무안공항에서 유럽·미주 간다 ▶2면
북스 - 'K 홀릭' '막료학' ▶14·15면
KIA 오선우 2년 기다림... 첫타석 홈런 ▶18면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병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2weeks
고함양 고함도 레티놀 분기형
밤자 주름 용출 단 2주만에 개선
— IOPE LAB —

슈퍼레티놀

단 2주만에 주름잡다

| 아이오페 레티놀 엑스퍼트 0.1% |

주름을 위한 당신의 노력을, 얼마나 효과가 있었나요?
이제, 주름보다 강한 슈퍼레티놀로
확실한 주름 개선 효과를 느껴보세요

레티놀은 아이오페

IOPE

*인·40-50세 성인 여성 대상(시험 2019.08.16-10.17 30명) 피부부담감·주름개선
고객상담실 080-023-5454 | www.iope.com